

초. 대. 석. 김하일 원창인쇄기계(주) 회장



정국전기 공급으로
또한번 비상 공 꿈꾼다

1958년부터 일본 아키야마 인쇄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근대 인쇄의 새 장을 열었던 원창인쇄기계(주)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원창인쇄기계(주)는 현 김하일 회장의 선친이신 김상동 전 회장이 삼우통산공사를 설립해 아키야마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인쇄기 공급이라는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김상동 회장이 25년 정도를 이끌었고 김하일 회장이 20여년 가까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으며 1999년부터는 동생인 김병찬 시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 가문에서 50년을 국내에 인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원창인쇄기계(주)가 유일하다. 원창인쇄기계(주)는 아키야마 인쇄기와 함께 2001년부터는 사쿠라이 인쇄기를 공급하며 곧 발표될 정국전인쇄기 공급을 통한 제2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내년이면 창립50주년이 됩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선친께서 창업하시고 제가 대를 잇게 된 것이지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인쇄인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쇄기 공급에 외길을 걸어온 우리 집안으로서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로부터 아키야마 인쇄기를 구입해 사업에 성공했고, 아키야마 인쇄기의 인쇄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부친께서 삼우통산공사로 시작한 아키야마와의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인쇄의 산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창의 역사를 한번 회고해 주시지요.

1958년 선친이신 김상동 전 회장님께서 삼우통산공사를 설립하여 일본 아키야마 인쇄기를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인쇄업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원창상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3년에 제가 대표직을 맡으면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후 아키야마 Hi-Ace 및 Bestech 기종의 인쇄기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1994년에 저의 꿈이었던 인쇄기계의 국산화를 위한 전단계로 아키야마 대국전양면인쇄기 및 4×6반질 4색인쇄기를 국내 최초로 조립 생산하였습니다. 이어 1995년 원창인쇄기계(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로 많은 인쇄업체들이 도산하면서 우리 회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객인 인쇄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2001년 일본의 인쇄기 제조회사인 사쿠라이 Graphic Systems Co사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쿠라이 기종은 인쇄품질도 좋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적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인쇄업체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1년 이후 사쿠라이인쇄기를 대거 공급했는데 현재 이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친께서 인쇄기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950년대는 6·25라는 민족의 참화가 있었지요. 당시 저희 부친께서

는 철도국 운수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외국어를 잘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무렵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나라가 어려서려면 언론과 출판이 발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표를 내고 인쇄기를 들여오기 위해 해외를 수차례 다닌 끝에 아키야마와 인연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아키야마의 주력기종인 JPrint, Bestech, eXtreme가 국내 인쇄인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키야마 인쇄기계는 소량, 다품종화로 빠르게 변화 되어가는 국내 인쇄업계 실정에 가장 잘 대응하는 장인정신이 깃든 인쇄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면전용인쇄기인 JPrint시리즈는 국내 공급 1위라는 도입실적이 증명하듯이 원가절감에 탁월하고 고품질 및 사용편의성, 뛰어난 생산성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엽지 인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항간에 아키야마 인쇄기는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들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Bestech 기종은 중국에서 조립 생산 되어 중국내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Bestech 기종은 구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JPrint와 eXtreme 기종은 일본에서 100% 제작된다는 점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현재 공급하는 아키야마와 사쿠라이 인쇄기중 국내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종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양쪽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키야마사의 JPrint 기종은 물론 eXtreme 기종은 시간당 1만6천회전의 속도에 자동 판결이, 각종프린셋, 블랭킷세척, 압통세척, 칠리, 오일냉각장치, 잉크롤러세척 등 모든 사양이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고, 생산성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6반절 기계가 주력기종인 사쿠라이사의 Oliver 기종은 타 기종 보다


콤팩트하고 사양 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기종으로서 현재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쿠라이에서 깜짝 놀란 만한 뉴스가 발표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곧 공개될 예정이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6반절 이하의 소형위주로 인쇄기를 생산하던 사쿠라이에서 정국전 사이즈의 인쇄기를 곧 출시합니다. 한마디로 독특한 사이즈의 경쟁력있는 인쇄기가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국전 사이즈의 인쇄기를 개발해서 인쇄시 소모품 등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월중 공개시연회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대 종이사이즈가 965×640mm, 최소 종이사이즈가 469×318mm이고 시간당 인쇄속도는 1만6천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인쇄판재만 해도 20% 정도가 절감될 것입니다.

1994년에 24시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고 국내에서 인쇄기 조립생산을 시도하는 등 인쇄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었는데요.

‘고객제일’이란 신념을 바탕으로 고객이 저희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24시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저의 일생의 목표였던 인쇄기계의 국산화를 위해 우선 조립생산기술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조립공장을 건축하여 아키야마 양면전용 인쇄기와 4×6반절 4색인쇄기를 국내 최초로 조립생산 하였습니다. 대기업도 꺼려할 정도로 인쇄기계 생산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조립생산 자체도 어려움이 많았고 고객들의 국내 조립인쇄기에 대한 인식도 낮았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체들이 앞장서야겠지요. 이대로 가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습니다. 또한 조립생산을 시도한 1994년 이후 국내 인쇄경기가 침체기로 들어서고 이어 터진 IMF외환위기로 더 이상 조립생산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버블경기의 붕괴와 더불어 아키야마사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지요. 현재 아키야마 본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수십 퍼센트씩 증가하고, 또한 약 6개월 이상의 생산 물량까지 이미 주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형 편면 인쇄기계인 eXtreme도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를 김병찬 사장님이 맡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병찬 사장이 원창에서 근무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전대 회장님 이후 제가 약 20년간 대표이사로 일을 하였고, 다음은 제 아우가 대표이사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 IMF 이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1999년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절보다 더욱 더 우리 인쇄업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인쇄인이 회장님의 근황을 궁금해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되돌아 보면 인쇄의 중심은 '을지로' 라는 말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키야마 Jprint의 거래처가 대부분 서울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서울 중심의 거래처에는 자주 들리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시내 고객사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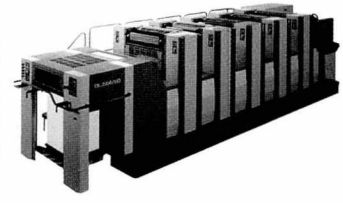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쇄업계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가격경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업종만큼 가격경쟁이 심해 마진이 낮은 업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체들이 앞장서야 하겠지요. 이대로 간다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쇄업체와 기자재 공급업체와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우선 기자재 공급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좋은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하고, A/S와 부품조달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 '인쇄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tip 사쿠라이 국전인쇄기



모델명 OLIVER 496SD
 최대 종이 사이즈 965×640mm
 최소 종이 사이즈 469×318mm
 인쇄 속도 4,000~16,000i.P.H
 종이 두께 0.04~0.6mm
 인쇄판 사이즈 975×710mm
 기계 사이즈(L×W×H)
 8805×3297×2100mm
 5색(L) 9,857mm

- 중후한 구조 및 내구성을 겸비한 고속, 고성능 인쇄기.
- 국제 안전 규격에 기초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함.
- 대구경(大口徑)의 7시 방향 통배열 구조로 지질에 상관없이 고품위 인쇄가 가능.
- 최신의 성력(省力) 장치와 자동화 설비가 장착되어 있음.
- 고객의 작업 환경을 배려한 공간 절약형 기종임.
- 모든 시리즈 기종에 공통부품화를 촉진하여 경제적인 가격을 실현.

생각합니다. 인쇄업체는 기계의 성능 및 가격을 파악해 업체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기계의 선택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교환을 통한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50여년을 변함없이 원창을 성원해 주신 고객사 사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50년 못지않게 앞으로 50년도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담: 유창준 국장 · 사진: 김정상 기자